전통궁궐 건축에 나타난 한중일 문양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주저자 : 박영순(Young-Soon Park)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이현정(Hyun-Jung Lee)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이경미 (Lee Kyung-mi)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황정아(Hwang Jung-ah)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 본 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수혜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진행

2. 연구 분석의 도구와 조사 대상
2-1 건축요소 분류
2-2 문양분석도구
2-3 대상공간

3. 한중일 궁궐건축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 비교
3-1 창덕궁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3-2 자금성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3-3 니조성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3-4 한중일 전통 건축 문양의 특성 비교 분석

4. 결 론

참고문헌

(要約)

새로운 문화 시대의 대두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할 증대는 한국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요소 중에서 문양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양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 답사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대상이 된 한,중,일의 궁궐은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국의 문양은 공통적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양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지붕 부위에 장식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길상과 관련된 문양이 가장 많고, 순수 장식을 위한 문양이 적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양은 덩굴문과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삼국은 문양의 종류 및 표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양은 중국이 용, 일본은 국화인데 비해 한국은 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어지나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구름이나 기하학적 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배경이 되는 문양들에 있어 반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하문의 경우, 일본은 큰 면적의 부위에서 간결하면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고, 한국은 다양한 변화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난 문양은 토끼, 귀갑, 학, 고양이, 거북, 기린, 산, 말 등으로 주로 동물 문양이었으며, 한국의 단독 문양은 오얏꽃, 치자꽃, 수련, 줏대살, 아(亞)자살이다. 일본의 니조성에서만 나타난 문양은 태극과 란마에서 나타난 눈, 투구, 새, 대나무, 나비, 소나무 문양이 독자적이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장수와 관련된 문양이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된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그 특징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문양은 도톰한 선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하며 추상적 표현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비해 중국의 문양은 가장 사실적이고 양감이 풍부하며, 색채가 강하고 다양하다. 그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이 있으며 세련된 장식과 기교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문양은 서로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은 양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문양은 가장 자연적이고 추상적이며 중국의 문양은 가장 인위적이고 사실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띄고 있는데, 가공도가 높을수록 재료 표면이 거칠어지며 문양의 표현이 간략화 되는 반비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문양 자체에 있어서의 생략과 축약 속의 세밀화라는 양면성과 병립한다. 이는 한국 문화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대치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가 선을 중심으로 한 형태 위주의 연구가 많았기에 파악되지 않았던 특색으로 보인다. 또한 문양은 풍토와 같은 자연적 영향보다는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각 민족의 의식과 창의성의 발현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한중일 삼국의 자연 친화 사상의 표현 방식에 연유하는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

KOREA, CHINA, JAPAN, Design element, Pattern, Identical prototyp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pattern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among those in the neighboring three nations of East Asia, notably Korea, China and Japan. The basic assumption underlying this study is that these northeastern Asian states have been developed a unique inter-cultural ties over long periods of time in history, culminating in their respective design cultures.

Undoubtly the ultimate goal to be pursued, by so doing, has to be inquiry into the identical prototype of Korean pattern design element. In the West, the pattern is appreciated by an aesthetic level, but the East Asian pattern is a symbolic alphabet deeply rooted in religious and folk beliefs.

The difference of the respective country comes from the expression style of the pattern : the Chinese express the magnificent pattern with various color, the Korean do the moderate pattern with harmonious color with the nature and the Japanese do the stylized pattern with the material color.

To sum up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mong the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as the following : It is to be noticed that the mainly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ic design are 'naturalism', 'harmonious ideas' and 'confucianism'. But the representation style of the design element is differed from the countr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문화의 시대 대두와 서구 사회의 기능 분산은 각 국가와 민족에게 고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성공의 모델로 생각되어온 서구 사회의 내부 모순은 동양의 사상과 가치 체계를 그 대안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에 문화적 잠재력을 인정받은 동아시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권 속의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한국 문화를 독자성을 지닌 문화라기보다는 유사한 '동아시아 문화' 속에 위치해 인근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선별해 내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우리 내부에서조차 다른 나라, 민족과 차별화되는 진정한 우리 것을 구별해 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의 근간이 되어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민족의 조형 의식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며 민족의 감정과 의식 체계, 미에 대한 기준 등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의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장 문화는 단순한 표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조형 의식 표현의 근본이며 건축물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하나의 정신 세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요소들 중에서 선의 표현과 삼차원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문양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실제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문양은 장식을 목적으로 나타낸 형상으로 추상적인 의미와 감정을 표현하고 상징한다. 예부터 모든 민족은 그들의 문화적 양식을 표현하는 도구로 문양을 사용해 왔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온 문양의 조형 방법, 소재, 의미 등에 대한 비교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위치를 파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라 사료된다.

1-2. 연구의 진행 . 방법. 절차.

연구의 진행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한,중,일의 문양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분석의 틀' 작성과 근본이 되는 삼국의 문화와 건축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문헌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중,일 전통 궁궐을 실제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측색, 자료 수집 등의 현지답사 및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답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중,일 삼국 문양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해 내었으며 각국의 문양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중에서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양 특성을 선별해 내어 이를 한국 의장의 정체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 고찰에서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삼국의 전통 문양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삼국 문양의 기저를 이루는 사상과 가치 체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건축물에서의 문양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 조사에 적용 가능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관찰 조사는 현지답사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창덕궁'과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을 직접 방문하여 각 국의 궁궐 건축에서 나타난 문양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된 한,중,일 삼국의 문양은 검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정리되었으며, 그 속에 내재된 각 국의 문화 의식은 조사 결과와 문헌을 통해 새롭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국의 문양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삼국 문양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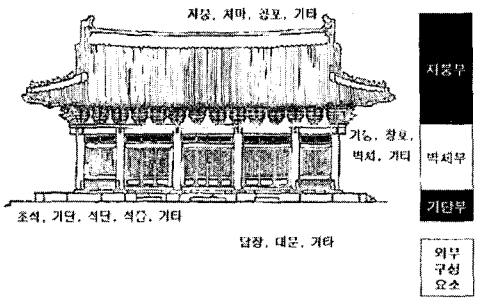
2. 연구 분석의 도구와 조사 대상

2-1. 건축요소분류

궁궐 건축물의 문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준이 되는 분석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남철(1979)의 '한국건축의장'에 소개된 건축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되, 건축물의 구성 요소에 따른 건축의장 특성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분석틀을 마련하기로 한다.(노태학 1986, 정유나 1995:2002, 박영순 2001, 최지연 2001, 김동욱 199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 구성부를 크게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세부 요소들은 외부 구성 요소로 따로 묶어 총 4개의 구성부로 나누기로 한다. 지붕부에 속하는 구성 요소로는 지붕, 처마, 공포, 기타 요소가 있고, 벽체부는 기둥, 벽체, 창호, 기타 요소로 구성되며, 기단부는 초석, 기단, 석물, 석단, 기타 요소로 분류했다. 그리고 외부 구성요소는 담장, 대문, 굴뚝, 기타 요소로 구성하였다. 건축 구성부에 따른 세부 구성 요소 내용은 아래의 [표2-1]과 같다.

[표 2-1] 건축구성요소 분류표

건축 구성 부위	건축 구성 부위별 세부 구성 요소
지붕부	지붕/ 처마/ 공포/ 기타
벽체부	기둥/ 벽체/ 창호/ 기타
기단부	초석/ 기단/ 석물/ 석단/ 기타
외부구성요소	굴뚝/ 담장/ 대문/ 기타



[표 2-2] 분석틀 마련을 위한 건축구성요소분류

1)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161-163.

선정된 분석틀은 한국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선행 연구의 고찰 결과, 중국의 건축물은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일 뿐 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6세기 이후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문양분석도구

삼국 문양의 공통점은 각 문양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양의 수와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는 비교가 힘든 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의 문양과 상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중국과 일본 문양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는 분류의 기준이 된 한국 문양을 실재적 모티브와 상징적 모티브로 나누어 그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 표이다.

[표 2-3] 문양의 상징적 의미

구분			문양명	상징의미
실재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짐승	코끼리	길상
			사슴	우애, 장수
			호랑이	벽사의 주재자
			두꺼비	달
			토끼	태음
			박쥐	복
			귀갑	장수
		조류	학	길상, 선비기상, 양(陽), 9가지
			공작	덕, 권세
			닭	광명, 길상
			원앙, 앵무	부부간의 애정
			오리	백년화목
		어류	잉어	출세, 자손번창
			물고기	출세, 즐거움,재산
	식물문	꽃문(초화문)	연꽃	생명,번영,청결,순결,연생
			매화	순결,절개,장수
			국화	절개, 길상
		초문	덩굴문	신성, 기물, 연면
			난초	장구, 자손창성, 군자 기품
		나무	대나무	군자 절개, 품위
			보리수	깨달음
			버드나무	벽사, 높은벼슬, 청정
			소나무	절의, 지조, 풍류, 장수
		과실	참외석류	자손
			영지	길상, 불로장생
			복숭아	장수
	곤충문		나비	자유연애, 행복, 자손번성, 장생
			매미	기쁨, 불사
	자연문		일월상문	음양오행
			구름문	환상적경지,신성
			수파문	복해, 조정
	기물문		청동솥	최고권위,권력
			별전	길상
			금강저	결단
			석쇠	잡귀를 방위
			팔보	상서로운 물건
			칠보	길리(吉利)
	글자문		만(卍)자	무한장구, 만복
			희(囍)자	천지, 음양의 화합
			회(回)자	결실, 영구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해태	정의
			삼족오	태양
			금계	고귀존영
	식물문		보상화	다복, 부귀, 다손
			태평화	
			네잎꽃	
	길상문		태극	주체성, 불멸성, 조화, 창조,단결
			팔괘	천지자연의 이치
			여의두	만사가 마음 먹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람
	기하문		방승	마음이 떨어지지 않음
			부귀기호	좋은 일이 연속
			연환	
			기타	의미없이 사용
	사신문		청룡,백호 주작,현무	방위
	사령문		용	벽사진경, 호법신,호국신,왕의권위
			봉황	다섯가지 덕
			거북	북방수호, 천지음양, 연년불사
			기린	吉祥靈獸
	십장생문		해,산,물,돌,구름	왕가의 상징
			소나무,	
			거북, 학	장수
			불로초	복록
			사슴	불로장생
	십이지상문		호랑이,용,말,닭,토끼,소,원숭이,돼지,쥐,개,뱀,양	1년에 12월에 걸쳐 서로 교대하면서 인계와 천계를 돌아다니며 교화
	귀면문			재앙을 물리침

2-3. 대상공간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중,일 삼국의 의장 요소는 비교 대상 건축물의 외장에서 나타나는 문양이다. 문양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및 주변 공간을 조사하였는데, 그 구체적 대상은 지붕부, 벽체부, 기단부, 주변 공간이다. 외부 공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건축 요소들을 통하여 문양의 종류 및 횟수, 상징성, 조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를 비교하기 위한 대상 건축물은 각 국의 대표적인 궁궐로 제한하며 구체적 대상은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 그리고 한국의 창덕궁이다. 이러한 궁궐 건축물은 그 특성상 주택과 사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장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거 문화에 있어서 왕이나 임금이 기거하였던 궁궐은 특정한 시기에 각 나라의 문화의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나 미적인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 각 국의 궁궐 건축을 대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대상 건축물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근세 동안 창건, 중건 또는 복원된 공간이다.

(2) 대상 건축물은 각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통치 및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던 공간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황제 또는 왕의 거주 공간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천황의 세력이 미약하고 쇼군(shogun)이 최고 권력자로서 군림하던 시기였으므로 쇼군의 거주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3) 대상 건축물은 모든 의장 요소가 집약되어 나타난 공간으로 각 국의 의장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4) 대상 건축물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재, 각 궁궐의 대부분이 복원된 상태로 일반인의 관람이 허용된다. 이는 답사 대상으로 삼기 위한 필수 요소로 대상 건축물은 연구자가 접근이 용이하여 자유로운 사진 촬영 및 측색, 기타 조사가 가능하다.

(5) 대상 건축물은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2]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류 보편의 문화재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

3. 한,중,일 궁궐 건축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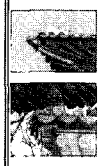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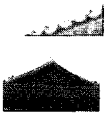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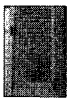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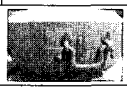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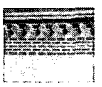
3-1. 창덕궁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창덕궁의 각 전각에 나타나는 문양을 전각별로 구분해 나타낸 표는 [표 3-1]이며, 이를 근거로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로 나누어진 문양 분석 도구에 의해 창덕궁의 주요 전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이 나타난다.

창덕궁에는 23종의 문양이 64차례에 걸쳐 나타났는데, 이는 각 전각의 부위별로 나타나는 문양의 수를 반복 횟수에 관계없이 하나로 처리한 결과로서 종류에 비해 반복 횟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3종의 문양 중 총 8가지 종의 꽃문양이 발견되어 단독 문양의 종류로는 가장 많은 경우로서 조사되었다. 창덕궁에서는 모든 문양과 더불어 나타나며 그 배경이 되는 구름문이 8회 조사되었고, 선적 구성의 건축물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그리드 중심의 기하문이 9종이 나타나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인다. 따라서 창덕궁의 문양은 단독 문양을 중심으로 그 배경 처리는 구름이나 기하학적인 선을 이용해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이 국화 문양인데 총 6회 나타났으며 봉화의 문양이 5회 나타났으며 용문양은 연꽃, 보상화와 더불어 4회 나타나 창덕궁에서는 용 문양이 왕의 상징이긴 하나 건축물에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의 비율은 가상적 모티브의 경우가 약간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밝혔듯이 배경이 되는 기하학적 문양의 빈번한 등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덕궁의 문양은 실재적 모티브에서 동물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보였고, 가상적 모티브에서도 전작을 지키는 짐승으로 여겨졌던 해태를 제외하고는 동물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나무, 과실, 곤충, 기물의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상적 모티브에서는 사신문, 십장생문, 십이지상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십이지상문이나 사신문의 경우, 경복궁에서는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므로 이러한 현상이 한국 궁궐의 특징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3-1] 창덕궁의 건물별 문양 사용 비교

조사 대상 / 건축구성요소		창덕궁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전체
지붕부	지붕				잡상, 용, 봉황, 귀면, 오얏꽃
		오얏꽃, 잡상, 봉황, 용, 귀면	봉황, 용	잡상, 봉황, 용	
	처마				연꽃, 치자꽃, 보상화, 모란, 수련, 구름, 마름모, 기하
		치자꽃, 기하, 연꽃, 보상화, 구름	연꽃, 보상화, 마름모, 기하, 구름, 수련	연꽃, 보상화, 모란, 마름모, 기하, 구름	
	공포				국화, 연꽃, 태평화, 치자꽃, 보상화, 덩굴구름, 점구름, 기하
		국화, 태평화, 당초, 덩굴구름, 치자꽃, 점구름	국화, 연꽃, 태평화, 덩굴구름, 기하, 보상화	국화, 연꽃, 태평화, 덩굴구름, 기하, 보상화, 점구름	
벽체부	기둥 및 벽체 창호				소슬빗살, 만(卍)자, 그리드, 격자, 줏대살, 치자꽃, 국화, 당초, 태평화, 구름, 기하
		소슬빗살무늬, 격자, 치자꽃, 기하문, 구름문	국화, 당초, 구름, 그리드, 태평화	구름, 기하, 줏대살, 만자	
기단부	기단				보상화
		보상화			
기단부	석물 및 석단				용, 해태, 봉황, 연화문, 구름, 국화, 여의두, 구름, 원
		해태, 연화문, 구름문, 용, 봉황, 국화	원	해태, 여의두, 구름	
	기타				여의두
		여의두			
외부 구성 요소	담장				기하, 아(亞)자 봉황
		기하, 아자(亞), 국화	기하, 아자(亞), 국화	기하, 아자(亞), 국화, 봉황	

2) UNESCO 세계문화유산 선정 : 자금성(1987), 니조성(1994년), 창덕궁(1997년)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길상(12종)을 상징하는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이 이념(3종), 벽사(3종), 장수(1종)의 순이며 중국의 문양에 비해 장수의 의미를 상징하는 문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며 전통 주택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문양이 벽사를 상징하는 문양임을 상기할 때, 궁궐 문양의 특색이라고 할 수 이 있다. 창덕궁의 문양에는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문양이 3종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기하문과 꽃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건물별로 문양의 차이를 보면 인정전의 경우 선정전이나 대조전에 비해 잡상의 수가 많고 기단이 좀 더 견실하게 설치되어 석단 부분에서 문양이 발견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세 전각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조전의 경우 굴뚝에 왕비의 상징인 봉황문이 나타나며 후원 담장에 아자문이 나타나는데 이는 길상의 의미 외에도 '버금'을 상징하는 바가 있으므로 으뜸인 왕 다음의 왕비를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재 난간을 설치하여 전통 주택에서 나타나는 구름문과 숫대살문을 설치한 점이 독특하다.

[표 3-2] 창덕궁의 문양 특성 ( ):문양이 나타난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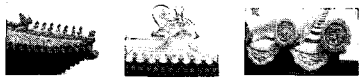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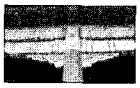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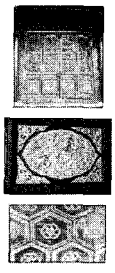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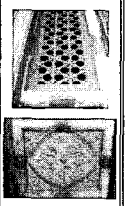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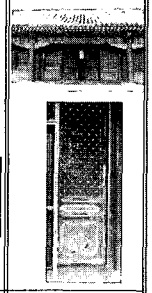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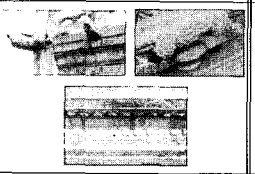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상징적 의미
실재적 모티브의 문양	식물문	꽃문(초화문)	연꽃(3) 국화(6) 오얏꽃(1) 모란(1) 치자꽃(2) 수련(1)	길상 : 생명, 번영, 청결, 순결, 연생 길상, 절개 이념 : 왕가의 상징 길상 : 화평, 부귀 길상 : 다복, 부귀, 다손 길상 : 다복, 부귀, 다손
		초문	덩굴문(1)	장수 : 신성, 기물, 연면
	자연문		구름문(8)	이념 : 환상적 경지, 신성
	글자문		만(卍)자(1) 아(亞)자(1)	이념 : 무한장구 장식, 길상 : 버금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해태(2)	벽사 : 정의
	식물문		보상화(4) 태평화(1)	길상 길상 : 다복, 부귀, 다손
	기하문		빗살(2) 줏대살(1) 십자(1) 마름(2) 기하(9)	길상 : 농경문화에서의 비 길상 : 결실, 영구 장식 장식 장식
	길상문		여의두(2)	길상 : 만사가 마음먹은대로 이루어지길 바람
	사령문		용(4) 봉황(5)	벽사, 이념 : 왕의 상징 길상 : 아름다움, 선, 따뜻함, 번영, 평화, 태양
	귀면문		귀면(1)	벽사 : 재앙을 물리침

다른 궁궐에 비해 석물의 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창덕궁이지만, 인정전이나 대조전 석단 아래의 해태상이나 인정전의 어도에서 보이는 봉황, 용, 구름이 어울린 석부조에서 한국 장식의 특징이 보이는데, 중국의 사실적 묘사에 비해 매우 부드럽고 도톰한 선으로 표현되었으며 해태의 표정 역시 자금성 사자의 얼굴에 비해 매우 해학적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창덕궁에는 분석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문양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으며 꽃문의 종류가 기준에 비해 다양하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인정전의 꽃문양 중 오얏꽃이 발견되는데, 이는 왕가의 상징으로 구한말에 더하여진 문양이며 창건 당시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3-2. 자금성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자금성의 각 전각에 나타나는 문양을 전각별로 구분해 나타낸 표는[표 3-3]이며, 이를 근거로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로 나누어진 문양 분석 도구에 의해 자금성의 주요 전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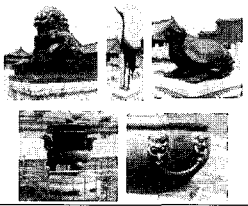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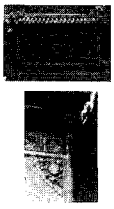
[표 3-3] 자금성의 건물별 문양 사용 비교(1)

조사대상 / 건축구성요소		자금성			
		태화전	건청궁	양심전	전체
지붕부	지붕	 잡상(봉황을 탄 선인, 사자, 천마, 해마, 산예, 압어, 해치, 투우, 행십), 용머리, 용, 여의두, 봉황			잡상 용머리 용, 봉황 여의두
	공포	 화새채화-용, 여의두, 회문(소용돌이)		 선자채화 - 꽃, 여의주, 회문	용 여의두 소용돌이 꽃
벽체부	기둥 및 벽체 창호	 금강저, 와당, 용, 여의두, 꽃, 귀배문,	 금강저, 용, 여의두, 구름, 봉황	 격자(고전투), 와당	금강저 격자(고전투) 와당 용 여의두 구름 봉황 귀배문
기단부	난간	 용, 봉황, 구름		*	용 봉황 구름
	기단	 공복, 운두, 화초괴장, 연화판		*	공복 운두 화초괴장 연화판

자금성에는 25종의 문양이 103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그 결과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용 문양이 17차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는 가장 빈번히 반복되는 문양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문양이 연꽃 문양인데, 이는 청동상이나 기단의 수미좌에 연화 받침이 빈번히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발견되는 문양은 꽃문으로 모든 문양의 주변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용의 문양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구름문과 여의두 문양이 많이 나타났다.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의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 모티브 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용 문양과 봉황 문양의 반복 횟수로 인해 사령문의 경우가 개별 횟수로는 가장 많다. 중국의 문양은 실재적 모티브에서는 어류, 나무, 과실, 곤충의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고, 가상적 모티브에서는 식물문, 사신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 자금성의 건물별 문양 사용 비교(2)

조사 대상 / 건축구성요소		자금성			
		태화전	건청궁	양심전	전체
기단부	석물 및 석단	용, 구름, 오봉, 수파문, 말, 사자, 만(卍), 연주, 화초괴자, 연화판	용, 구름, 수파문, 봉황, 기린, 식물문, 오봉, 물거품, 사자, 와당 연화문, 연화판	꽃, 화초괴자, 연주, 수파문, 구름, 고양이, 도철	용, 봉황 기린, 말 사자, 고양이 구름, 오봉, 수파문, 물거품, 만(卍), 와당 식물문, 연주 화초괴자 연화판, 연화문 도철
	기타	 사자, 용, 학, 거북, 구름, 화초괴자, 연화판, 여의두, 초두			사자, 용 거북, 학 구름, 화초괴자 연화판, 여의두 초두
외부 구성 요소	담장	토끼, 꽃	구름	 꽃, 연화, 연엽, 연방, 용, 원앙, 모란, 여의두문	용, 원앙, 토끼, 꽃, 모란 연화, 연엽, 연방, 여의두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길상(8종)과 장수(6종)를 상징하는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이 종교나 이념(5종), 벽사(4종)의 순이며 순수한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문양(1종)은 적게 나타나 순수한 장식적 부재보다는 기능과 의미론적 상징을 겸하는 장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문헌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유교의 근검, 절약 정신의 영향으로 순수한 미적 표현이나 감상을 지양하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기능과 연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조작이 돋보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물별로 문양의 차이를 보면 전각의 위계 자체에서 태화전과 건청궁에 비해 양심전은 격이 낮으며, 이는 체화의 종류와 기단의 규모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특히 기단부에 집중되어 있는 용 문양을 비롯한 많은 문양들이 양심전에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며, 그 대신 원앙과 모란 등의 부부 금슬이나 화평, 안정을 의미하는 문양들이 나타나 침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각 전각의 문양은 개수와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반복의 횟수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태화전과 건청궁의 기단과 난간에는 수 많은 용의 문양과 그 주위를 둘러싼 구름문, 수파문 등이 발견되며, 이러한 석재에 조각한 문양들은 양감이 매우 뛰어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각 전각의 앞에는 청동이나 금으로 색을 입힌 사자, 거북, 학 등의 동물상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사실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나며 엄격한 얼굴을 하고 있다. 중국의 문양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도철 또는 초두라고 명칭한 일종의 귀면문으로서 무서운 표정의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데, 이는 금속재의 드무와 함께 발견되어 방화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자금성에는 분석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문양으로 사자, 고양이 등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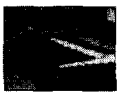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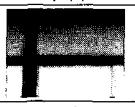
[표 3-4] 자금성의 문양 특성 ( ): 문양이 나타난 횟수

구분			내용	상징적 의미
실재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짐승	토끼(1) 귀갑(1)	장수 : 장수, 동쪽, 태음 장수
		조류	학(1) 원앙(1)	장수 길상 : 부부간의 애정
	식물문	꽃문(초화문)	연꽃(13) 모란(1) 꽃(12)	길상 : 생명, 번영, 청결, 순결, 연생 길상 : 화평, 부귀 장식
		초문	덩굴문(1)	장수 : 신성, 기물 연면
	자연문		구름문(10) 수파문(7)	이념 : 환상적경지, 신성 이념 : 복해, 조정
	기물문		금강저(2)	이념 : 결단
	글자문		만(卍)자(1)	장수 : 무한장수, 만복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해태(2)	벽사 : 정의
	기하문		빗살(1) 와당(3)	길상 길상
	길상문		여의두(10)	길상 : 만사가 마음먹은대로 이루어지길 바람
	사령문		용(17) 봉황(7) 거북(1) 기린(1)	벽사, 이념 : 재왕 길상 : 아름다움, 선, 따뜻함, 번영, 평화, 태양 장수 : 장수, 힘 길상
	십장생문		산(2)	이념 : 왕가의 상징
	십이지상문		말(1)	이념 : 교화
	귀면문		도철(1), 초두(1)	벽사 : 재앙을 물리침

3-3. 니조성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 및 특성

니조성에 나타나는 문양을 구분해 나타낸 표는 [표 3-5]이며, 이를 근거로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로 나누어진 문양 분석 도구에 의해 니조성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6]과 같이 나타난다.

[표 3-5] 니조성의 건물별 문양 사용 비교

조사 대상 / 건축구성요소		니조성		
		니노마루 고텐	혼마루 고텐	전 체
지붕부	지붕			국화, 국화잎 태평화, 보상화 투구, 태극 물결 소용돌이, 사자 여의두, 당초 구름, 봉황
		국화꽃, 국화잎, 태평화, 여의두, 보상화, 태극, 투구, 사자, 봉황문, 소용돌이	국화, 물결, 태극, 층을 이룬 물결, 여의두, 당초무늬, 구름, 투구	
	처마 및 공포			여의두, 당초 투구, 구름 새, 소나무 매화, 눈 조릿대, 나비
		여의두, 당초, 투구, 새, 소나무, 매화, 눈, 조릿대, 나비	여의두, 구름	
벽체부	기둥 및 벽체			보상화, 여의두 국화, 원형
		보상화, 원형, 여의두	보상화, 여의두, 국화, 원형	
	창호			그리드
		그리드	그리드	
외부 구성 요소	담장 대문	*		국화, 투구, 기하
		*	투구, 국화, 기하	

니조성에는 20종의 문양이 43차례에 걸쳐 나타났는데,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문양의 종류 및 발견 횟수가 가장 적다. 그러나 니조성의 문양은 같은 문양 즉, 국화꽃 문양의 다양한 변화와 끊임없는 반복이 그 특징으로 발견되어 벽체부나 기단부를 제외한 지붕부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중국이나 한국에 버금가는 다양한 문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조성의 문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여의두인데, 이는 일본 문양의 영어 명칭으로는 temple gong라 부르는 것으로 지붕의 합각 부위와 처마, 공포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그 다음이 국화꽃 문양인데, 수많은 국화 문양이 꽃잎의 개수와 주변의 배경을 달리하면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특히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기와로 3차원 성형된 형태의 국화꽃 문양이 발견되어 일본인의 섬세한 세공력을 발견할 수 있다. 니조성을 비롯한 일본 건축물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건물 진입부의 투구형의 지붕을 가진 문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당의 영향이라 여겨지며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로서 다른 연결된 건축물들에 비해 독특한 형태와 장식을 하고 있다. 니조성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투구형의 지붕을 가진 건물의 입구 부분에서는 많은 독특한 장식들이 발견된다. 니조성의 문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입구 부분의 란마의 장식인데, 투각된 목재에 채색한 장식으로 나타나는 란마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의 실재적 모습이 나타나있어 다른 부위의 간결하고 양식화된 문양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표 3-6] 니조성의 문양 특성 ( ): 문양이 나타난 횟수

구분			내용	상징적 의미
실재적 모티브의 문양	동물문	조류	새(1)	길상 : 화평, 안정
	식물문	꽃문 (초화문)	매화(1)	이념 : 순결, 절개, 장수
			국화(5)	길상 : 길상, 장수
		초문	덩굴문(2)	장수 : 신성, 기물, 연면
		나무	대나무(1)	이념 : 정사, 무인, 용감
			소나무(1)	길상 : 장수, 행운, 길조
	곤충문		나비(1)	길상 : 자유연애, 행복, 자손번성, 장생
	자연문		구름문(2)	이념 : 환상적경지, 신성
			수파문(3)	이념 : 복해, 조정
가상적 모티브의 문양	식물문		보상화(3)	길상
			태평화(1)	길상 : 다복, 부귀, 다손
	기하문		십자(2)	장식
			원(2)	장식
	길상문		태극(2)	이념 : 주체성, 불멸성, 조화, 창조, 단결
			여의두(6)	길상 : 만사가 마음먹은대로 이루어지길 바람
	사령문		봉황(1)	길상 : 아름다움, 선, 따뜻함, 번영, 평화, 태양

실재적 모티브와 가상적 모티브의 비율은 거의 같으나 실재적 모티브의 상당 부분이 란마의 장식이므로 실제로는 가상적 모티브에 의해 양식화된 문양의 종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니조성의 문양은 실재적 모티브에서 짐승과 어류의 문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과실문, 기물문, 문자문도 보이지 않는다. 가상적 모티브에서는 식물, 기하, 사령, 길상의 문양만이 나타났으며 중국이나 한국의 궁궐과는 달리 용 문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목상의 왕이긴 하나 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용 문양과 같은 사실화된 문양은 일본인의 미학과는 맞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길상(7종)을 상징하는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이 이념(5종), 장수(1종)의 순이며 벽사의 의미를 지닌 문양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벽사의 의미를 지닌 문양의 모티브가 대부분 동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일본 문양의 양식화된 특성에 비추어 어울리지 않는다는 조화의 견지에서 나타난 의도적인 구성으로 보이며, 흔히 이념의 상징으로 간

주되는 수파문이 중의적으로 용왕의 노여움을 상징하여 악귀를 물리친다는 중의적 의미가 있으며 일본의 옛 문양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원이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각 문양이 중의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서 벽사를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니조성의 문양에서는 순수한 장식의 용도로 사용된 문양은 2종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물별로 문양의 차이를 보면 니노마루 고텐의 경우 란마의 영향으로 문양의 개수가 증가했을 뿐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건축물은 평기단에 툇마루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단부에 전혀 장식이나 문양이 발견되지 않는다.

3-4. 한중일 전통 건축 문양의 특성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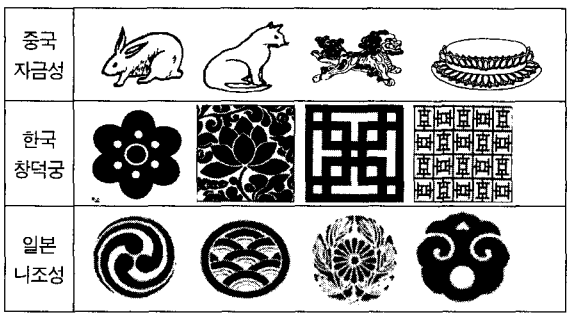
조사 결과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양은 덩굴문,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의 4종이며 이 외에 자금성과 창덕궁에는 연꽃문과 만(卍)자문, 해태, 빗살, 용 문양이 공통적이었고, 창덕궁과 니조성에는 국화, 보상화, 태평화, 십자 문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니조성과 자금성에는 수파문 만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금성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난 문양은 토끼, 귀갑, 학, 고양이, 거북, 기린, 산, 말 등으로 주로 동물 문양이 많고, 한국의 단독 문양은 오얏꽃, 치자꽃, 수련, 줏대살, 아(亞)자살이다. 일본의 니조성에서만 나타난 문양은 눈, 투구, 새, 대나무, 나비, 태극, 소나무로 태극을 제외한다면 모두 란마에서 보이는 문양이다.

[표 3-7]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에 나타난 공통문양

자금성-창덕궁-니조성	창덕궁-자금성	창덕궁-니조성	니조성-자금성
덩굴문,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	연꽃문,만(卍)자 문,해태,빗살,용	국화,보상화 태평화,십자	수파문

문양의 종류 뿐 아니라 그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삼국은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의 문양이 가장 사실적이고 양감이 풍부하며, 색채가 강하고 다양하다. 그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이 있으며 한국의 문양은 도톰한 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특색이 있다. 다음 [표 3-8]은 각 궁궐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문양의 예들인데,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3-8] 한중일 삼국의 궁궐에 나타난 특징적 문양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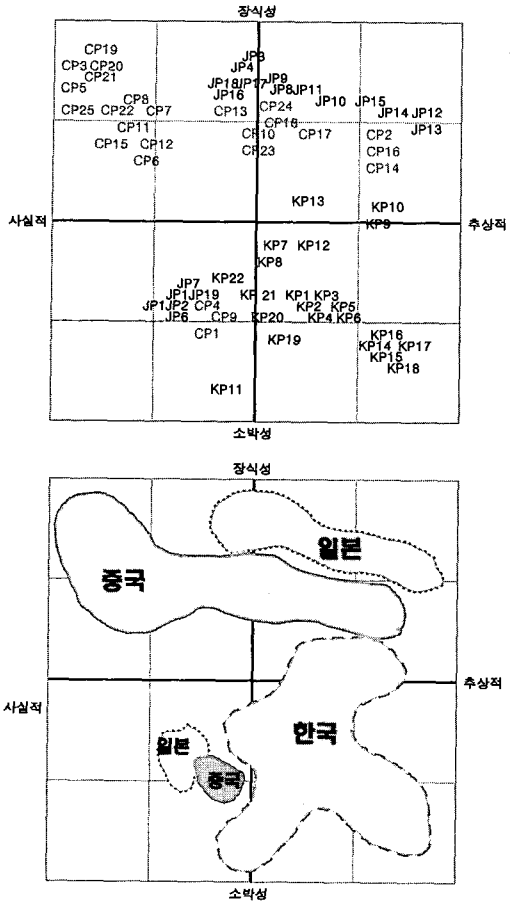
표현 방법에 있어서의 삼국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조사된 각 문양에 대하여 <표 3-9>와 같이 기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림3-1]과 같은 스케일로 작성했다. 이는 문양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인 표현의 사실성과 장식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문양의 표현 방법에 있어 삼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가로축인 사실적 표현의 정도는 문양의 모티브를 표현할 때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하느냐, 추상화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인 장식성은 얼마만큼의 기교와 장식을 이용하여 표현을 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9] 한,중,일 삼국 문양의 기호표

한국		중국		일본	
문양	기호	문양	기호	문양	기호
연꽃	KP1	토끼	CP1	새	JP1
국화	KP2	귀갑	CP2	매화	JP2
오얏꽃	KP3	사자	CP3	국화	JP3
모란	KP4	고양이	CP4	덩굴문	JP4
치자꽃	KP5	학	CP5	대나무	JP5
수련	KP6	원앙	CP6	소나무	JP6
덩굴문	KP7	연꽃	CP7	나비	JP7
구름문	KP8	모란	CP8	구름문	JP8
만(卍)자	KP9	꽃	CP9	수파문	JP9
아(亞)자	KP10	덩굴문	CP10	보상화	JP10
해태	KP11	구름문	CP11	태평화	JP11
보상화	KP12	수파문	CP12	십자	JP12
태평화	KP13	금강저	CP13	원	JP13
빗살	KP14	만(卍)자	CP14	태극	JP14
줏대살	KP15	해태	CP15	여의두	JP15
십자	KP16	빗살	CP16	봉황	JP16
마름	KP17	와당	CP17	투구	JP17
기하	KP18	여의두	CP18	사자	JP18
여의두	KP19	용	CP19	눈	JP19
용	KP20	봉황	CP20		
봉황	KP21	거북	CP21		
귀면	KP22	기린	CP22		
		산	CP23		
		말	CP24		
		도철,초두	CP25		

문양 스케일을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문양 표현 방법에 대한 특성과 위치를 규명할 수 있게 되는데, 중국은 일부 담에 나타나는 벽돌로 조각된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양이 장식성이 높으며 사실적 표현이 삼국 중 가장 강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란마에 나타나는 일부 사실적이고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문양이 추상적이며 매우 장식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문양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추상성이 높으며 특히 매우 소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의 장식성은 기교와 세밀화의 수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국은 사실적 세부 묘사에 더 치중하고, 일본의 문양은 패턴화 또는 양식화를 통해 절제된 스타일로 정리한 후 가볍고 산뜻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문양이 중국에 비해 더욱 높은 정도의 장식성과 세련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문양은 기교와 장식의 이미지가 부족하며 도톰한 선으로 소박하게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는 표현을 즐기고 있다.

[그림3-1] 한중일 삼국 문양의 표현 스캐일



이상의 조사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중일 삼국의 문양 특성은 다음의[표 3-10]과 같이 나타난다.

[표 3-10] 한중일 삼국 문양 특성

		한국	중국	일본
공통성		자연 모티브, 동일한 문양 반복 지붕 부위에 장식이 많음 길상과 관련된 문양이 가장 많이 나타남 순수 장식을 위한 문양이 적음 공통 사용 문양 : 덩굴문,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		
차별성	반복문양	배경문양 (기하, 구름)	용	국화
	단독문양	오얏꽃, 치자꽃, 수련, 줏대살, 아(亞)자살	토끼, 귀갑, 학, 고양이, 거북, 기린, 산, 말	태극, 난 눈, 투구, 새, 대나무, 나비, 소나무
	의미론	길상문양에 집중	장수 문양이 많음	벽사 문양이 없음
	표현	도톰한 선으로 부드럽고 소박한 느낌	사실적이고 양감 풍부 색채가 강하고 다양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

4. 결 론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을 대상으로 한중일 문양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삼국의 문양은 공통적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양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지붕 부위에 장식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길상과 관련된 문양이 가장 많고, 순수 장식을 위한 문양이 적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양은 덩굴문과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삼국은 문양의 종류 및 표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양은 중국이 용, 일본은 국화인데 비해 한국은 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어지나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구름이나 기하학적 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배경이 되는 문양들에 있어 반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하문의 경우, 일본은 큰 면적의 부위에서 간결하면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고, 한국은 다양한 변화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난 문양은 토끼, 귀갑, 학, 고양이, 거북, 기린, 산, 말 등으로 주로 동물 문양이었으며, 한국의 단독 문양은 오얏꽃, 치자꽃, 수련, 줏대살, 아(亞)자살이다. 일본의 니조성에서만 나타난 문양은 태극과 란마에서 나타난 눈, 투구, 새, 대나무, 나비, 소나무 문양이 독자적이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장수와 관련된 문양이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된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그 특징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문양은 도톰한 선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하며 추상적 표현이 많은 특징이 있는데 비해 중국의 문양은 가장 사실적이고 양감이 풍부하며, 색채가 강하고 다양하다. 그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이 있으며 세련된 장식과 기교를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중,일 삼국의 문양은 동일한 문양의 반복 사용, 목조 본위 건축과 건축 의장 문화의 특성으로 나타난 지붕부의 강조 등과 연결된 지붕 부위 장식 등이 그 공통적 특성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순수 장식의 문양보다는 길상 등의 의미론적 기능을 함께 부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양은 주로 배경이 되어 조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덩굴문과 구름문, 불교에서 비롯된 여의두, 음양오행과 연결된 사령 중의 하나인 봉황문으로 삼국이 공유하고 있던 사상에서 발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 삼국에 나타난 문양은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이 양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문양은 가장 인위적이고 사실적이며 한국의 문양은 가장 자연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중국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가공이 증가할수록 문양의 표현이 사실화되고 복잡해진다는 비례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인위적 가공성이 높으나 자연적 느낌이며 문양은 추상화되어 있다. 즉, 가공도가 높을수록 문양의 표현이 간략화되는 반비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문양 자체에 있어서의 생략과 축약 속의 세밀화라는 양면성과 병립한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문화의 위치 즉,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가 선을 중심으로 한 형태 위주의 연구가 많았기에 파악되지 않았던 특색으로 보인다.
한중일 삼국의 문양에 있어서의 차이는 한중일 삼국의 자연 친화 사상의 표현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국의 자연 친화 사상은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개념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자연속에 순응시키고, 인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자연을 추구하기에 부드러운 선과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을 사용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자연 친화 사상은 자연보다 인간이 상위의 개념으로 상대의 개념이 항상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인간이 완벽하게 재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인위적 가공에 의한 세밀한 표현과 화려한 색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일본의 자연 친화 사상은 인간보다 상위의 자연으로서 자연의 조화로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인간은 숨어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양에 있어서도 기교와 장식을 통해 자연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가벼운 장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삼국의 문양과 이를 포함한 의장 문화는 공통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왔다. 전통이라는 것은 현대적 계승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전통 궁궐을 통하여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이 현대에 어떠한 형식으로 계승되고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또한 필요로 한다. 즉, 전통 의장 문화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계승과 발전의 의미를 함께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서 한중일 삼국의 전통 궁궐의 문양 특성을 정리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한중일 삼국의 전통 문양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제시된 한국의 고유한 의장 특성은 세계 속의 한국적 디자인 개발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 권윤숙(1992), 우리나라 단청의 문양과 색채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 박지연(2000),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창살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 노태학, 한국 전통건축의 텍스츄어 의장특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러우칭시. 이주노 역, 중국고건축기행, 컬처라인, 2002
- 박영순, 시각적 질감을 중심으로 한 한국전통소재의 체계적 분류, 2001.
- 박영순, 전통소재에 의한 한국문화상품의 특성화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보고서, 2001.
- 박지연,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창살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2002.
- 안영배, 한국 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 안상수(1986), 한국전통문양집, 안그라픽스
- 오근재(1985), 한국문양의 전개, 미진사
- 오오다 히로다로, 일본 건축사, 발언, 1994.
- 임영주(1983), 한국문양사
-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윤장섭, 한국건축사, 동명사, 1981
-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채색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79,.
- 최지연,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1.
- 태영란(1990), 조선시대 궁궐건축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상옥, 한국 전통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편, 기문당, 2001
- jenny de gex, Asian style source book, PERIPLUS, 2001
- Ru Jinghua, Peng Hualing, Palace Architecture, SpringerWiennNewYork, 1998